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서 검사 용기가 검찰개혁 계기되길

'권위'(authority), 뭘 뜻하는 말일까. 한마디로 정당한 권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력'이란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정당성'이란 권력의 행사를 종속자가 수락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수락한다는 것은 권력의 행사가 자신에게 적절하거나 결코 그 어떤 위해도 없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권위는 누구에게 부여될까. 먼저 그 근원을 알아보면 전문성, 정당성, 존경 등이 내재되어 있다. 그만큼 커다란 힘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권위는 쌓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도 어렵다. 또한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만큼 무거운 것이다. 때문에 주어진 권위는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은 꼭 그렇지 않은

않다. 주어진 권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버리기 때문이다. 참으로 천민적의 발로다. 망나니들의 갑이다. 아니 망나니들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 사실 망나니를 탓할 수는 없다. 뒷사람의 지시에 따라 실행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할 뿐이란 말이다.

요즘 현직 여검사 성폭력 문제로 난리다. 세상에 검사 성폭력을 당하다니, 누가 믿겠는가. 그런데 현실이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더더욱 힘 있는 자들이 여성검사들을 향해 벌이는 더러운 짓거리들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 밝고 고운 세상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정의로운 일만 하는 줄 알았다. 누가? 검사가. 그런데 그 검사가 여성검사들을 향해 가장 추악한 범

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그동안 주어진 칼을 이용해 온갖 쓰레기 같은 행위들을 해 온 검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동료 여검사들을 향해 서까지 배후행위를 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이번 피해 여검사의 성폭력행위 건은 발생장소도 열거적이다. 장례예식장이었기 때문이다. 실로 슬프고 엄숙한 고인에 대한 예식이 진행되는 곳이다. 그곳에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동료 검사들이 줄줄이 참석한 곳이었다. 장관이 참석할 정도면 사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계층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내 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겠는가. 그리고 공개된 장소다. 그런데도 옆에 있는 여검사의 영정과 허리 등을 만지는 등 성폭력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안태근

검사가 말이다. 안태근 전 검사는 매우 잘 나가는 검사로서 우병우의 측근이었다. 이것은 아무리 봐주려 해도 봐줄 수가 없는 작태다. 그렇잖은가, 금수만도 못한 행태다. 그것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뿌리뽑힐까봐 변하지는 않았다. 근본은 살아있던 말이다. 그렇다 면 안 전 검사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고 살아왔을까. 참으로 궁금하다.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국장이란 막강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추잡한 일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참으로 개리개리다. 흥측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오물통 속 가면극이다. 만약 추방행령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안태근 등은 지금도 승승장구 중일 것이다.

최교일은 아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누가 검찰의 수사에 권위를 부여하겠는가. 이미 무너져 버렸기에 말이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긴속한 검찰개혁 뿐이다. 그래야 검찰이 살고 국민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社說

학교서 커피 퇴출 반긴다

앞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스, 가공 유류 등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정작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치부돼 여전히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교사들을 배려해 일반 커피음료는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카페인이란 음료는 너무 많이 마시면, 여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성장기에 있는 유·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과 육체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주민의 불침번 CCTV통합관제센터

우리는 평소 주변에 설치된 CCTV와 자주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아침에 출입문을 나서면 아파트 승강기 및 경비실에 있는 CCTV를 보고 출근하는 동안 여러 장소에 설치된 CCTV를 마주하고 사무실에서 퇴근해서 귀가하는 순간까지 많은 CCTV를 접하고 있다.

이렇듯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경찰서와 행정기관이 협업하여 주로 범죄예방·학교주변 어린이보호 및 안전과 산불감시 등 다목적 기능의 통합관제센터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경찰관과 관제요원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사건·사고 해결 및 범인검거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일례로 현재 112, 119, 재난, 아동보호 등 행정기관별로 연계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긴급 상

황 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CCTV 관제센터와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간 유기적 연계가 지속된다면 현장경찰관의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으로 범죄 대응역량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보호 및 주민안전에 CCTV 등 치안인프라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소요예산 및 자치단체장의 이해 부족으로 시설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치안시설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것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참수리의 눈으로 24시간 불침번이 될 것을 다짐한다. 김성수 / 무안경찰서 생활안전과

불법주정차, 이대로 괜찮은가

도시부터 시골까지 불법주정차는 존재한다. 그 이유는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구역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화순만 해도 상가밀집지역에 공용주차장은 1곳으로 대부분이 근처아파트나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최근 나주 빗가람 파출소에 있었던 교통사고도 뒷차를 피해 차선변경을 하다가 불법주정차 되어있던 차의 백미러를 친 사고였다. 백미러를 친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이들도 불법주정차를 하니 자신도 했다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들은 '남이 하면 나도 상관없겠지'라는 생각, 또한 '무슨 일이 있겠나'라는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어 의외의 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경찰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구청, 시청, 소방등과 함께 홍보 및 캠페인을 한다면 예방효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보증해고자 법이 존재하고 법집행은 경찰의 몫이다. 비록 소액의 범칙금이지만 상습적으로 주정차하는 국민들에게 한해 엄격한 단속도 필요하다. 불법주정차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위와 같은 사고 예방, 질서유지는 물론이고 최근 있었던 제천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워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만큼 예측 불가능한 것은 없다. 혼자 예방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작의 첫걸음으로 불법주정차를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과 경찰, 소방과 함께 조금씩 실천해간다면 예방은 물론이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합심해서 조속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박실기 / 나주 빗가람파출소 순경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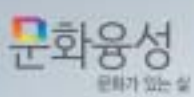
律 呂 調 陽
법칙 을 律 呂 調 陽
생세 여
고를 조
별 양

▷ 뜻 : 천지간의 양기를 고르게 하니 즉 음은 양이요, 여는 음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